

광주·전남 상장사 실적 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고'

코스피 13개社, 금호산업·타이어 힘입어 흑자 전환

코스닥 11社, 작년 매출액 4248억 전년비 11% 줄어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전년 대비 지난해 영업실적이 코스피(유가증권) 상장법인인 나아졌지만 코스닥 법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4개사(유가증권 13, 코스닥 11)를 대상으로 지난해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시장의 매출은 6조9562억원으로, 2012년말(7조5586억원)보

다 7.97%(6024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125억원에서 3895억원으로 1770억원, 비율로는 83.25% 신장했고, 마이너스 2218억원이던 순이익도 132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서 경기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해 코스피 법인의 성장은 금호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모두 흑자로 전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금호산업은 매출 1조4337억원, 영업이익 582억원, 당기순이익 127억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2년 적자에서 지난해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법인은 금호타이어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매출액 2조9143억원으로 2012년보다 12.8%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721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639억원으로 2012년의 1268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나 광주·전남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부채비율도 168.59%로 200% 이하로 낮아져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광주신세계는 매출이 2066억원, 영업이익 560억원, 당기순이익 486억원으로 모두 2012년보다 감소했으나 지역 상장사 가운데 순이익 2위를 유지했으며 조세내화는 매출이 4917억원, 영업이익 290억원, 당기순이익 3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유신소재와 DSR제강 등 3개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11개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적자는 로케트전기와 KPX화인케미컬 등 두 곳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흑자이었다.

코스닥 시장 11개사 전체 매출액은 4756억원에서 4248억원으로 10.

7%(50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03억원에서 121억원으로 60.1%나 줄었다. 순이익 역시 238억원이던 것이 19억원으로 무려 219억원이나 곤두박질쳤다. 부채율도 전년말 대비 9.06%포인트 높아진 45.8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다.

상장사 중 오이솔루션의 당기순이익이 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와이엔텍 50억원, 와토스코리아가 3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KPX생명과학과 우리로광통신 등 4개사는 적자로 돌아서거나 적자 상태가 지속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월2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민간인 첫 입주자가 시작된 LH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모습. 올 2분기에 광주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는 14개 단지 536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분기 '아파트 분양전쟁'

광주 오피스텔 등 5368 가구...작년 8배 급증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난 만큼, 올 상반기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광주지역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사랑방(homesrb.com)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14개 단지 5368가구로 1분기 3개 단지 2135가구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전년 동기(5개 단지 702가구)와 비교하면 7.6배가 늘었다.

이달에는 광산구 수완2차 전아리채 C12-5블록에 138가구와 서구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11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5월에는 광산구 AM-CITY 하이클

래스 112가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제일풍경채 613가구, 선운 EG The15·7블록에 각각 378·310가구가 들어선다. 동구에서는 복층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결합한 총장아원 224가구가 입주하고 북구는 대광로제비마을이 60~85㎡ 267가구, 85㎡ 108가구가 입주한다. LH가 효천2지구 B2·B3블록에 공공분양형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14개 단지 5368가구로 1분기 3개 단지 2135가구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전년 동기(5개 단지 702가구)와 비교하면 7.6배가 늘었다.

이달에는 광산구 수완2차 전아리채 C12-5블록에 138가구와 서구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11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5월에는 광산구 AM-CITY 하이클

2분기 가계·기업 빚 크게 늘듯

은행 대출수요 지수 2002년 이후 최고 기록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가 강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수요 지수는 27로, 2002년 1분기(33)에 이어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작년 1분기만 해도 8에 불과했으나 작년 3분기 24, 올해 1분기 26 등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16개 은행의 여신 담당 책임자를 상대로 한 설문용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100 사이에서 분포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이다.

대출 부문별로는 가계의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2로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가계의 일반자금 대출 수요가 이 기간 6~13~16으로 상승했다. 가계 대출수요 지수의 상승은 소득 여건 개선은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는 늘고 주택구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의 대출 태도도 다소 완화적이다. 대출태도 지수는 4~6~7로 작년 4분기 이후 오름세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은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고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 경계감도 작용, 전분기와 같은 -9로 집계됐다. 신용위험 지수는 22로 2분기의 24보다는 낮지만, 가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해외 기능성 식품 인증 지원해 달라"

지역 수출업체,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간담회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국내 식품인증 제도 개선'과 '해외 기능성 식품 인증 취득 지원'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나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식품 수출업체의 애로 해결방안 및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미경 생산업체인 권동혁 ㈜신안 천사김 대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업체 스스로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도 해외 바이어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방사능 수치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운 동의나라㈜ 대표는 "해외 기능성 인증을 취득하면 미인증 제

품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고 매출도 크게 올릴 수 있다"며 "해외 기능성 식품 인증 등 특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전남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수산물 업체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관원 전남지원 고구마·감자 양곡표시 지도·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본희)은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구마·감자 등의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이 기간 고구마와 감자의 품목과 중량,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 전화번호 등 생산자 정보 등에 대해 특별 계도할 방침이다. 생산된 고구마나 감자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산물물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들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새터민·다문화여성 미니 취업박람회 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미니취업박람회'를 찾은 새터민과 다문화여성 등이 취업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광주전남다문화취업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경제고용진흥원 제공>

인터넷 쇼핑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93.70 (-3.55)	557.01 (-0.64)	2.88% (0.00)	1057.90원 (+1.30)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보건공단 통합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kosha.or.kr

일터의 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이 도와드립니다.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직업건강 / 교육지원 / 서비스업 재해예방